

KOTRA 국가정보

이탈리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면적	301,333 km ²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 (ISTAT), 2021.12. 기준)
수도	로마(Roma)
민족(인종)	이탈리아인(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남부에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소수 거주)
언어	이탈리아어(국경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
종교	기독교 80%(대부분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등 기타 20%
기후	지중해성 기후
국가원수	○ 대통령: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 12대 대통령, 2015년 2월 3일 취임 ○ 총리: 마리오 Дра기(Mario Draghi) - 2021년 2월 13일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4-06-26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소득에 대한 조세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정	2015-01-23	조세당국의 정보공유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2012. 4. 추가 서명
워킹홀리데이 협약	2014-10-23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2012. 4. 서명
사회보장협력협정	2005-04-01	연금 등 양국의 사회보장 제도 규율	2000. 3. 서명
운전면허상호인정 교환각서	2002-05-04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2002. 2.과 3. 각서 교환
관광협력협정	2000-11-01	양국 정부차원의 관광산업 협력 강화	2000. 3. 서명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약	1992-07-01	조세당국의 정보공유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1989. 1. 서명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 협정	1992-06-01	양국간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상호 보호 강화	1989. 1. 서명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1984-02-01	과학 및 기술분야의 교류 증진과 협력강화	
경제협력협정	1982-05-0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추진	
무역협정	1965-03-01	양국간의 무역 증진 도모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1961-06-01	양국간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 추진	1961. 3. 서명
1984년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종료를 위한 교환각서	2018-09-05	2007년 개정협정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구 협정을 종료2007년 개정협정은 우리측 제안각서에 대한 이탈리아 측의 회답각서 회신일에 발효	2018. 8.10. 및 9. 5. 각서 교환(로마)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2019-11-27	기초과학을 비롯한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 .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2007. 1.16. 서명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2019-11-27	교육 · 학술 및 문화 기관 이 자국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장려 · 촉진	2005.10.21. 서명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2021-06-09	안보 및 국방 정책, 방산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군 의료서비스 등에서 협력을 장려	2018.10.17.서명, 2021.06.07. 관보게재

한국교민 수

3,783 명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2021.12.))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양국 관계는 2000년 한국 정상의 첫 이탈리아 방문 이래 10여 년간 양국 정상의 방문이 10차례나 성사되고 G20 등 다자회의 계기의 양자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그 격과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 이탈리아는 2014년 ASEM 정상회의 주최 및 EU 의장국 수임, 2015년 EXPO 주최, 2017년 G7 의장국 및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등 국제무대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은 UN, ASEM, G20, EU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이 연장선으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에서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언론 발표문 채택을 통해 양국관계 격상뿐 아니라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이탈리아 정치안보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궁극적인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와의 정치, 안보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2020년 10월 정상통화 및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기후변화에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탈리아는 한국의 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다.

◦ 2021년 10월 한-이탈리아 외교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시 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특히 2018년 10월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혁신, 취약집단 보호 등 양국 간의 협력을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경제

◦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G7, G20, ASEM, OECD, EU 등 다자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이탈리아와 경제정책 공조 지속 강화해왔다.

- 양국 간 경제협력은 이탈리아 시장 및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등 다원적인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시회 참가, 경제사절단 방문, 경제·투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마케팅 노력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21년 3월 한국과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원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는 백신 분화에 대비한 화산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료, 과학 분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 2021년 9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한-이탈리아 산업·에너지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간의 산업, 에너지 및 통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양국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대변환을 맞이해 양국간의 산업, 에너지, 통상 3개 부문에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문화

- 한국 문화원

2016년 로마 중심부 지역에 한국 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주 로마 문화원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크게 한국어 강좌, 한식 강좌, 기타 문화 강좌로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어 강좌는 초급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학기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발판을 다지고 있으며, 한식 강좌는 현지 한국인 셰프가 진행하는 요리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기타 문화 강좌는 가야금, 풍물 등 전통 강좌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영화상영, 국악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서관 등을 통해 이탈리아 주민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강좌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유명 셰프와의 협업으로 한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 한국문화주간

이탈리아에서 한국영화 인지도가 높아 로마, 피렌체, 밀라노 등 대도시에서는 매년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영화제와 연계해 한국 문화주간을 마련, 사물놀이, 한지 공예품 전시, 한국 작가 초청전 등을 개최해 문화행사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2021년에는 온라인 한국 영화제로 개최돼 보다 많은 관객과의 만남을 도모한 바 있다.

- 오징어 게임 등 넷플릭스 K-드라마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두며 이탈리아 내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K-콘텐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지에서 한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 밀라노 총영사관과 로마 한국 문화원에서는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식 콘테스트 등으로 현지의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1.67	0.94	0.3	-8.87	
명목GDP (십억\$)	1,961.11	2,093.09	2,005.14	1,994.94	
1인당 GDP (PPP, \$)	41,748.26	43,228.47	44,217.62	40,861.29	
1인당 명목 GDP (\$)	32,367.11	34,605.68	33,219.85	31,288.02	
정부부채 (% of GDP)	134.1	134.4	134.6	155.6	
물가상승률 (%)	1.33	1.24	0.64	-0.15	
실업률 (%)	11.27	10.63	9.88	9.12	
수출액 (백만\$)	510,555.63	547,339.23	532,669.53	43,726.76	
수입액 (백만\$)	456,796.79	501,297.26	473,517.53	37,091.72	
무역수지 (백만\$)	53,758.84	46,041.97	59,152	6,635.04	-
외환 보유고 (백만\$)	52,847.85	55,167.96	59,156.62	59,821.59	
이자율 (%)	0	0	0	0	
환율 (자국통화)	1.13	1.18	1.12	1.14	

〈자료원 : IMF, EIU,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 동향

이탈리아 경제는 남유럽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2014년부터 내부적으로는 산업체질 개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유가 하락,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유로화 약세 등에 힘입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2017년 1.7%(IMF 기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물가상승률 상승, 실업률 감소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모두 호조세를 보여 이탈리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든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세는 2018년 급격히 둔화되어 3분기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전환돼 2019년에는 0.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8.9%를 기록하며 유로존 내에서도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 3월부터 지속된 록다운(이동금지)와 섯다운(비필수 산업 영업금지) 조치로 인해 전 산업 분야로의 경제적 파장을 피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가 지속되고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무보증 담보 대출 강화 등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책을 시행해 경제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으로 부분적 록다운(이동금지)가 이어지며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피해가 확산됐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회복하기 위해 2월에 새롭게 구성된 드라기 정부에서는 '선방역 후경제'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With Corina) 정책으로 전환해 경제 정상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회복기금을 활용해 녹색산업, 디지털, 보건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탈리아의 혁신과 재건을 목표로 추진되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를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이탈리아의 경제회복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155%까지 상승한 국가부채와 지속되는 정치 불안 등은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불안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2021년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은 이탈리아 통계청 6.3%, EU 6.2%, OECD 6.3%, IMF 5.7%로 예상하며 각 기관은 종전의 5% 정도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며 기대보다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20년도 하락폭에 비하면 낮은 수치로 이탈리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내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대내적으로는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 여파는 2021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진 바 있다. 2020년도 10월부터 본격화된 2차 팬데믹의 영향으로 부분적 록다운(이동금지)과 야간 통행금지 정책이 2021년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빠르고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시행하며 이로 확진자 수가 급감하자 5월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 억제를 위드 코로나(With Corona)정책으로 전환해 경제 활동 정상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경제침체 장기화의 우려에서 벗어나 산업생산의 빠른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 반등에 성공했다. 2021년 2월에 구성된 드라기 신정부는 '선방역 후경제' 정책으로 방역을 최우선으로 경제 안정화 및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EU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경제회복기금(RRF)을 활용해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 및 투자 확대, 국가 재건 프로그램 가동 등 장기적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이탈리아 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꾸준한 경기회복이 전망되고 있다. 다만, 경기부양책에 대해 지속되는 정당 간 이견과 갈등, 그리고 확대재정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등이 안정적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는 IMF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차후 국채금리 상승,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에 대비해 이에 대한 안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제 정상화 등으로 수출시장 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지속되는 브라질 등 남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3,643,087,336
2	프랑스	52,938,021,186
3	미국	45,845,291,566
4	영국	26,459,846,744
5	스페인	26,439,561,651
6	스위스	23,452,486,291
7	중화인민공화국	15,448,647,422
8	벨기에	15,297,178,371
9	폴란드	14,381,004,245
10	네덜란드	11,964,132,44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9,133,167,419
2	프랑스	57,705,276,327
3	미국	50,252,109,971
4	스페인	28,792,779,961
5	영국	28,376,935,493
6	스위스	26,472,392,072
7	폴란드	16,181,665,236
8	벨기에	15,812,959,027
9	중화인민공화국	15,671,151,345

10	네덜란드	13,893,469,56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5,878,282,690
2	프랑스	56,899,757,634
3	미국	52,895,415,498
4	스위스	29,213,443,392
5	영국	28,755,252,147
6	스페인	27,716,899,501
7	벨기에	16,075,334,564
8	폴란드	15,320,146,548
9	중화인민공화국	14,787,250,484
10	네덜란드	13,637,375,13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4,121,594,781
2	프랑스	51,308,248,670
3	미국	50,004,472,156
4	스위스	28,944,844,169
5	영국	26,029,845,997
6	스페인	23,540,338,115
7	벨기에	17,127,993,676
8	중화인민공화국	15,082,145,886
9	폴란드	15,061,526,885
10	네덜란드	13,352,007,24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4,325,430,039
2	프랑스	40,621,674,540
3	중화인민공화국	32,221,789,190
4	네덜란드	25,696,243,967
5	스페인	24,207,470,596
6	벨기에	20,101,991,738
7	미국	17,058,772,874
8	러시아	14,023,931,131
9	스위스	13,735,147,764
10	영국	13,064,907,400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3,070,707,312
2	프랑스	44,091,561,773
3	중화인민공화국	36,606,722,160
4	네덜란드	26,882,095,435
5	스페인	24,631,146,179
6	벨기에	22,833,327,328
7	미국	18,991,652,332
8	러시아	18,033,189,714
9	영국	13,361,318,139
10	스위스	13,054,339,08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6,991,557,054
2	프랑스	40,532,483,648
3	중화인민공화국	35,577,939,170

4	스페인	25,881,467,958
5	네덜란드	24,971,270,078
6	벨기에	22,160,037,052
7	미국	19,146,157,970
8	러시아	16,169,659,583
9	스위스	12,294,282,536
10	폴란드	12,044,278,61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9,233,261,021
2	중화인민공화국	36,786,490,296
3	프랑스	36,566,216,008
4	네덜란드	25,217,721,578
5	스페인	22,489,185,609
6	벨기에	20,763,512,970
7	미국	16,966,356,049
8	스위스	10,928,151,908
9	폴란드	10,767,834,373
10	러시아	10,658,471,343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1,970,688,13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147,197,641
3	271019	기타	8,494,501,827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6,960,887,429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282,056,157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77,006,578
7	870899	기타	5,500,594,263
8	848180	그 밖의 기기	5,105,988,572
9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740,819,869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470,214,33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3,082,076,837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762,170,168
3	271019	기타	9,803,776,863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418,479,504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208,760,414
6	870899	기타	5,975,149,304
7	848180	그 밖의 기기	5,456,227,388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265,418,983
9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138,894,398
10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5,034,034,98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7,298,546,326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178,034,924
3	271019	기타	8,511,173,278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559,449,109

5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251,783,270
6	4202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5,545,163,794
7	848180	그 밖의 기기	5,418,942,482
8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350,133,539
9	870899	기타	5,346,266,826
10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099,091,34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8,782,215,549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4,828,965,164
3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307,381,972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017,071,074
5	848180	그 밖의 기기	5,011,842,795
6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5,009,896,935
7	271019	기타	5,009,125,651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868,345,655
9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609,194,777
10	300439	기타	4,421,089,26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6,123,353,728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5,197,057,603
3	271121	천연가스	13,350,235,097
4	300490	기타	12,474,060,678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665,041,404

6	271019	기타	6,553,956,782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231,566,200
8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4,828,773,394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406,149,383
10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430,743,051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3,323,438,674
2	271121	천연가스	16,713,857,673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4,854,916,719
4	300490	기타	12,529,718,069
5	271019	기타	8,341,994,130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386,093,711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655,261,939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594,574,433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708,229,635
10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4,227,840,68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9,102,359,181
2	271121	천연가스	13,930,753,070
3	300490	기타	12,638,736,312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0,090,756,876
5	271019	기타	7,109,847,187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765,653,061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초과 1,500cc시 이하인 것	5,654,808,504
8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532,348,124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65,178,448
10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cc시 이하인 것	4,624,460,08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165,051,322
2	300490	기타	13,190,956,524
3	271121	천연가스	8,823,851,894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8,088,220,796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시 초과 2,500cc시 이하인 것	6,405,720,081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706,667,810
7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299,695,600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75,116,090
9	271019	기타	4,249,152,058
10	300439	기타	4,141,983,83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3,758	5,696	-1,938
2018	4,493	6,303	-1,810
2019	3,773	6,449	-2,676
2020	3,221	6,651	-3,430
2021	3,686	6,695	-3,00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319	56	262
2	7411	승용차	372	214	158
3	6132	열연강판	204	1	203
4	6133	냉연강판	199	1	197
5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60	118	141
6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58	16	41
7	2262	의약품	105	309	-205
8	7420	자동차부품	90	86	4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5	84	-30
10	8352	축전지	72	11	6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40	합성수지	466	66	400
2	7411	승용차	445	283	162
3	6132	열연강판	273	1	272
4	6133	냉연강판	209	2	207
5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86	117	69
6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133	26	107
7	2262	의약품	130	268	-138
8	7420	자동차부품	94	83	11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2	92	-10
10	8352	축전지	79	8	7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13	가방	4	1,304	-1,300
2	5212	신발	4	497	-494
3	4412	작물제의류	6	295	-290
4	7411	승용차	372	214	158
5	2262	의약품	105	309	-205
6	5183	주얼리	6	170	-164
7	4411	편직제의류	4	209	-205
8	7111	원동기	22	88	-67
9	1334	나프타	0	144	-145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60	118	14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13	가방	4	1,300	-1,296
2	5212	신발	4	473	-469

3	4412	식물제의류	7	307	-300
4	7411	승용차	445	283	162
5	2262	의약품	130	268	-138
6	5183	주얼리	5	251	-246
7	4411	편직제의류	6	237	-231
8	7111	원동기	25	145	-120
9	1334	나프타	0	118	-118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86	117	6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진단용 시약		
HS Code	3822	수입액('20/US\$백만)	1,943
수입관세율(%)	0%(FTA 협정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257.7
선정사유	한국제품이 현지 시장 수입 점유율 급증으로 '20년 수입 3위 국 차지. 21년 7월 10% 수입 증가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한국제품의 코로나 진단 시약은 현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		
경쟁동향	유럽국인 독일, 프랑스 및 미국, 일본과의 경쟁 치열		
진출방안	체외진단시약은 CE 인증이 필수		
품목명 2	프로필렌		
HS Code	3902	수입액('20/US\$백만)	2,017
수입관세율(%)	0%(FTA 협정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78.1
선정사유	한국 수출 주력제품으로 21년 산업생산력 회복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 22년에도 수입 증가세 지속 기대		
시장동향	화학 분야 강국으로 산업생산력이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품 생산 및 수요 증가		
경쟁동향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인근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 상위 차지		
진출방안	업체 간 빠른 대응이 필요해 현지화를 통해 진출		
품목명 3	금속절삭선반		
HS Code	8458	수입액('20/US\$백만)	181.8
수입관세율(%)	0%(FTA 협정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137.6
선정사유	이탈리아 '전환4.0'정책 시행 및 경제회복세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		
시장동향	한국제품이 경쟁 우위인 품목으로 이탈리아 수입국 1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유럽국인 독일, 프랑스 및 미국, 일본과의 경쟁 치열		
진출방안	전시회를 통한 현지 업체 파트너 발굴 필요		
품목명 4	금속머시닝센터		
HS Code	8457	수입액('20/US\$백만)	203.2
수입관세율(%)	0%(FTA 협정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22.7

선정사유	이탈리아 '전환4.0'정책 시행 및 경제회복세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		
시장동향	선진국 간의 경쟁이 치열한 품목으로 한국제품의 시장확장세. 21년 7월 기준 105% 수입 증가		
경쟁동향	유럽국인 독일, 벨기에, 그리고 일본과의 경쟁 치열		
진출방안	AS 및 설치 등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전시회 등을 통해서 업체 확인이 필요		
품목명 5	합성스테이플섬유		
HS Code	5503	수입액('20/US\$백만)	302.2
수입관세율(%)	0%(FTA 협정관세율)	대한수입액('20/US\$백만)	51.4
선정사유	전통적으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기술과 가격경쟁력에서 시장 우위를 확보하는 중		
시장동향	저가 제품과 고가제품의 시장 양분화. 한국제품이 고가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수출 증가		
경쟁동향	고가제품은 독일, 벨기에. 저가 제품은 중국과 터키로 양분		
진출방안	다품종 소량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음. 화상 미팅, 전시회 등 바이어와 직접 접촉이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전자상거래
선정사유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시장동향	이탈리아 디지털 환경 및 배송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을 통한 물품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세
경쟁동향	Amazon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국내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 글로벌 플랫폼이 시장을 확장 중
진출방안	유럽에 단독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글로벌 플랫폼 입점으로 시장 공략 가능
품목명 2	법률회계 컨설팅
선정사유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양국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법률회계 컨설팅 업체의 필요성 증가
시장동향	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부족함 (회계사는 없음). 세무 및 무역,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증가세
경쟁동향	현지 이탈리아 로펌에서 한국 데스크를 구성, 서비스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
진출방안	한국 로펌과 이탈리아 로펌의 업무협약으로 담당자 파견을 꾀해볼 수 있음
품목명 3	물류, 창고 대여

선정사유	소량 다품종 교역국으로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창고 및 물류서비스업 진출 유망
시장동향	인국 유럽국과 미국 등의 물류기업이 창고대여 사업에 진출해 있으나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고 대여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없음
경쟁동향	현지에 한인 물류업체가 존재하나, 창고 대여 서비스는 병행하고 있지 않음
진출방안	현지 한인 물류업체와의 협업도 도모 가능. 통관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을 경우 용이함
품목명 4	사무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선정사유	기업 및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으로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기업 디지털 전환으로 사내 ERP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구축 수요 증가
경쟁동향	글로벌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경쟁이 치열. 주로 독일,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형성
진출방안	현지어 프로그램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이 필요함. 현지 업체와 기술적 협업으로 시장진출 가능
품목명 5	비대면 애플리케이션
선정사유	기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 지속세를 유지. 일부 대학에서도 비대면 수업 진행
시장동향	사이버 미팅 프로그램 등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애플리케이션 필요성 확대
경쟁동향	줌, 구글 미팅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사이트를 통한 자체 시스템 구축
진출방안	애플 핸드폰 사용자 비율이 높아 안드로이드, 애플용의 두 버전 개발 필요. 언어 현지화 필수.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발효 및 2015.12.13. 전체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A(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3-27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6. 협정의 현대화 협상개시 및 2020. 4. 28. 협상 타결. 현재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할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상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 5.)
CA(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럼(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	----	------------	------------	--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잠정보류. 직전협상: 2016.10.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 합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 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중단. 직전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중, 직전협상: 2021.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중, 직전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중, 직전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잠정보류. 직전협상: 2013.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중, 직전 협상: 2021.6.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중, 직전 협상: 2021.6.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 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직전 협상: 2019. 4.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CE 마크 대리인 규정

-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현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현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공개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환 기간을 두고 2023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증서 구매 필요 없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으로,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치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대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계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 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나,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 관세제도 개요

(회원국명)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

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수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히며 면제제도의 폐기이유를 설명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19)

2021년 4월 19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에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한국과 동일하게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의 형태를 가진 이탈리아는 7,400km의 해안선을 따라 약 150개의 항구가 있으며 주요 국제 항구로는 제노바 항구, 나폴리 항구, 베네치아 항구 등이 있다. 한국에서 출발한 이탈리아행 화물이 도착하는 이탈리아의 주요 항구로는 서쪽은 제노바항, 동쪽으로는 베네치아항이 있다. 이 중 제노바항은 통상적으로 해상화물 운송의 가장 중요한 메인항으로, 많은 선사가 제노바항과 부산항과의 다이렉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의 다른 주요 항구들로는 서해안의 경우 제노바 바로 밑에 위치한 라스페치아, 동해안의 경우 중부에 위치한 앙코나와 남부의 바리를 들 수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2021년 1월 기준 제노바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2,044,71 tons[전년 대비 -4.0%]로, 전년 대비 전체 물동량은 7.6% 감소하였다. 베네치아의 경우, 2021년 상반기(1월~6월) 물동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8% 증가한 460,376 tons를 기록하였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

◦ 주요 공항: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으로는 로마의 피우미치노(Fiumicino) 공항과 밀라노의 말펜사(Malpensa) 공항이 있으며, 밀라노와 로마의 공항을 중심으로 전국에 20여 개의 국제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럽 전역으로의 편리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다. 밀라노말펜사(MXP) 공항이 북부 지역의 주요 국제 운송을 담당한다면, 로마의 피우미치노(FCO)는 중/남부 지역의 국제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주요 관광지들에도 공항이 있으나, 유럽 내 항공편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밀라노와 로마에는 앞서 언급한 메인 공항 외에도 각각 리나테(Linate)와 치암피노(Ciampino) 공항도 있는데, 이 두 공항은 국내선 및 EU 노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19년 기준 말펜사 국제공항은 물동량이 545,000톤,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이 29,308,399톤으로 각각 전년 대비 -2.4%, 2.1%의 변동 폭을 보였다. 또한 말펜사 국제공항 이용 승객수는 2019년 2천 680만 명이며,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의 경우, 이용 승객수는 4천 353만 명이다.

3) 유의사항

동해안 즉, 지중해를 마주한 항구들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은 대부분 지중해 인접 국가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국항 direct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환적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통 2~3번 정도 환적이 이뤄지게 된다. 성수기의 경우, 환적 시 연결 선박에 충분한 스페이스 확보가 용이치 않아 장기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납기가 촉박한 화물의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출고 및 선적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 서류 부족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면 이는 화물배송 지연으로 이어지며, 이는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을 동반하기에, 원활한 통관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바이어를 통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을 것을 권장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에 선적 일정 및 비용을 운송 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상 및 항공 모두 가용한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한 편이기에 실제 원하고자 하는 선적 일정보다 2~3주 전에 미리 스페이스를 예약해 놓을 필요가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이탈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수입통관 구비서류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특수한 품목인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 수입 통관 구비 서류

-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 수입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ATA Carnet)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 물품과 같이 이탈리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으면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수입금지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우편통관(Postal Clearance)

모든 국제 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이다. 우편물에 '국제 우편물 통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5) 보세통관(Bonded Clearance)

이탈리아 내 수입 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T1(보세운송통관서류)을 발급 후, 다른 보세지역에 수입 화물을 운송하면 지정된 곳에서 통관할 수 있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

	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	---

통관 시 유의사항

○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 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 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통관 경비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와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22%)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은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는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로,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이탈리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이탈리아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 준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관은 물건 도착 시 일반 수입인지 라이선스 수입인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지 제한된 허가 품목인지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한다. EU 규정 내 안전지침을 따른 적합한 품목 여부와 CE 마크 준수, 위조제품 여부 등에 관한 엄격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Vector S.p.A

주소	Via Redipuglia 7, 21053 Castellanza(VA)
전화번호	+39 0331 446000
이메일	info@vectorspa.it
홈페이지	http://www.vectorspa.it

◦ GAVA IFC S.p.A

주소	Via Lodi 23, 20060 Vagnate Loc. S. Pedrino, Milano
전화번호	+39 02 950 0981
이메일	info@gavagroup.com
홈페이지	http://www.gavagroup.com/
비고	https://www.gavagroup.com/news/leggi_area.asp?ART_ID=1878&ARE_ID=33&MEC_ID=339&userlang=ITA 접속 가능

◦ COTALIA S.R.L

주소	Via Giuseppe di Vittorio 8, 20060 Liscate(MI)
전화번호	+39 02 36640701
이메일	info@cotalia.com
홈페이지	http://www.cotalia.com
비고	한인 기업

◦ A.I.F. ITALY

주소	Via Giuseppe Di Vittorio 4, 20060 Liscate (MI), Italy
전화번호	+39 02 958 7759
이메일	italy@atlanticif.com
홈페이지	http://www.atlanticif.com/
비고	전세계 12개 BRANCH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계 물류 업체

◦ Acc Cargo Europe Srl

주소	Via Londra 7/9, 20090 Segrate(MI), Italy
----	--

전화번호	+39 02 8450 1952
이메일	italia@accargo.com
홈페이지	http://www.accargo.com/
비고	한인기업. Internet : 070 8683 4214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이탈리아는 EU의 투자법을 따르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5월 역외보조금에 따른 EU 시장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기업 인수 합병 시 관련 보조금에 대한 '직권소자' 권한을 부여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5천만 유로 이상의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이 연 매출액 5억 유로 이상인 EU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 집행위에 통지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은 없으나,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외국 기업이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주요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가하락 및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전략적 인프라 관련 기업보호를 위해 역외뿐 아니라 역내 외국인 투자심사를 강화했으며,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리아에서 받는 권리 수준은 국내 기업과 다르지 않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권화가 명확해 국세청 및 경제개발부에서 주도하는 투자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주 정부) 재정과 연계되는 지역별 투자유치정책을 비롯한 투자정책은 지방정부 권한으로 수행하고 있어 지방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 및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1) 특별 산업 인센티브

방위산업 또는 항공기술 등 기술 집약형 프로젝트 또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 4.0(Industrial 4.0)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설비 및 R&D 투자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인센티브 관련 상세 정보는 경제개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 중견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기업 조세감면제도

-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한 기업 또는 개인은 소득세의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은 연간 최대 1백만 유로, 기업은 1.8백만 유로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 Super Depreciation, Hyper Depreciation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에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에 40%와 150%까지 계상을 허용하여 회계상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 R&D분야 세금 혜택

- R&D 지출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 박스(Patent Box) 제도 운영을 통해 R&D 분야에 최소 투자금액이 3만 유로 이상인 경우 기업의 매출액, 법적 형태, 분야 등과 관계없이 소득세나 지방세 중 하나를 선택해 5년간

50%의 세액이 공제된다.

2) 조세 인센티브

◦ Law 338/2000에 근거한 인센티브

- Law 338/2000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의 '신경제' 촉진 정책에 따라 기업이 정보 기술(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포털, 보안, 전자 결제시스템, 직원 교육훈련)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60%를 세금 환급해준다.

◦ Law 145/13에 근거한 인센티브

- 전년 대비 R&D에 높은 비용을 쓴 기업은 최대 5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지출 시 65%, 최대 2만 유로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3) 입지 인센티브

◦ Law 341/95에 근거한 인센티브

- 남부 및 저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설비나 기계류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로써, 제조업 및 광업에 적용되며 수혜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Law 181/98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Law 311/2014에 근거한 인센티브

- 이탈리아 개발공사(Sviluppo Italia)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개발 지역 투자에 대한 탄력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혜 정도는 지역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EU 규정상의 지원 한도 확인을 위해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4) R&D 관련 인센티브

◦ FAR(Fondo per le Agevolazioni alla Ricer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시행령 297/99에 근거해 교육대학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University and Research)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공정 개선 등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원된다. 주로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연구 기관 설립 프로젝트 등에 배정된다.

◦ FIT(Fondo per l'Innovazione Tecnologica) 기금을 활용한 인센티브

- 법 46/1982에 근거해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인센티브로 첨단 기술 분유, 경쟁 전 단계 개발, 산업 연구,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된다. 남부 지역에서는 통합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지원될 수 있다.

◦ Law 140/97에 근거한 인센티브

- 연구 및 경쟁 전 단계 개발 프로젝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일괄 신청한다.

5) 채용 인센티브

◦ 신규 노동법(Job Act)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 2016년에 개정된 신규 노동법을 적용해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2년 동안 고용주세 감면 혜택이 있다. 신규 노동법 적용 인센티브 조건은 피고용인이 최소 6개월 동안 구직상태여야 하며, 정규직 채용이어야 한다.

◦ 정규직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 18~29세 사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는 첫 18개월간 피고용자 급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피고용인 한 명당 6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자, 고등교육 학위 미보유자, 한 명 이상의 가족과 거주하는 중 적어도 하나는 충족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 트레이닝 인센티브

- 특정 전공이나 연구 분야와 관련해 18~29세 사이 구직자들을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이 가능한 견습생 계약의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트레이닝 기간은 약 36개월로, 이 경우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세는 급여의 11.3%에 불과하다. 해당 견습생에 대한 재계약 시 향후 12개월간 사회보장세 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방인재 육성 관련 인센티브

○ 'Resto al Sud(Stay in South)' 정책

- 남부지방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과 저리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남부지역 청년들은 창업과 관련된 부동산, 기계구입, 관리비용 등 발생비용 일체에 대해서 5만 유로까지 100%(현금지원 50%, 대출 50%)지원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비 EU 회원국의 이탈리아 국내선 운항 사업, 조선 산업, 방위 산업을 비롯해 국가 전략 산업인 에너지, 광업, 통신, 의약, 관광, 보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부분적인 투자 제약이 있다.

○ 금융산업

-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금융기관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거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비금융 회사는 은행 지분의 15% 이상 소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방산,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

-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유나 외국 투자가 소속 국가가 이탈리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제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방산, 항공산업의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정부 지분 보유와 함께, 황금주를 보유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외 국가 전략산업

- 2011년 3월 이탈리아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 보호법안인 'Decreto Anti-scalate'가 의회를 통과해 법률로서 발효됐다. 동 법안의 골자는 4개의 국가기간산업인 식품, 에너지, 통신, 방위산업에 대해 재정부 산하 특수 국영금융회사인 CDP(Cassa Depositi e Prestiti)가 지분 매입 등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전략 펀드(Fondo Strategico Italiano)를 창설한 바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한 투자심사 강화 및 제한 산업 확대

- 2020년 4월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자국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특별 법안을 통과, EU 역내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심사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 전략 산업의 해외거래를 제한하는 정부 권한인 '골든파워'의 적용대상 산업 범위를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 지대	이탈리아 북동부 트리에스테(Trieste)와 베니스(Venice) 항구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는 제품 반입, 제조와 재수출이 자유로우며 현지 세관 당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 지역 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인 근로자를 자국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고용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트리에스테와 베니스 이외에 제노바와 나폴리에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 이탈리아 남부 지방의 경우, 여타 지역 대비 경제 수준이 다소 낮은 지역인 8개 주(아부르쵸, 몰리제, 캄파니아, 발리아, 바실리카타, 칼라브리아, 시칠리아, 사르데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한 신규자산의 법인세 감축 및 신규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

산업단지

◦ 베네토 전자, 기계산업 클러스터

규모	1,877개 업체
위치	비첸자(Vicenza)를 중심으로 한 베네토 전지역
임차료	산업단지 위치 및 도시에 따라 차이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기관명: DISTRETTO DELLA MECCATRONICA ◦ 주소: Piazza Castello, 3, 36100 Vicenza ◦ Tel: +39 0444.232500 ◦ 이메일: info@distrettomeccatronica.it
비고	지능매입형 공작기계, 머시닝 센터, 산업용 로봇, 엔진, 펌프 등 기계산업에 중요한 클러스터(산업단지)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과 긴밀한 상호 협력 체제 형성

◦ 미란돌라 의료기구 산업 클러스터

규모	321개 업체
위치	미란돌라(Mirandola)를 중심으로 메돌라(Medolla), 콘토르디아(Concordia) 지역
임차료	산업단지 위치 및 도시에 따라 차이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기관명: Consobiomed Società Consortile A.R.L. ◦ 주소: Via Focherini 23 - 41037 Mirandola (Modena) ◦ Tel: +39 0535 24351 ◦ 홈페이지: www.consobiomed.it
비고	플라스틱 의료기기 소모품과 전자의료기기 중심. 몰딩, 압출성형, 조립, 기구제작, 컨설팅 등 기능별로 특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음. 의료기기 대기업들이 특정 기능을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이로 기술특화 단지로 성장함.

◦ 파르마 식품산업 클러스터

규모	1,070개 업체
위치	파르마(Parma)를 중심으로 인근 18개 마을

임차료	산업단지 위치 및 도시에 따라 차이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기관명: Provincia di Parma, Ass.to Agricoltura e Attività Produttive - 주소: P.le della Pace, 43121 Parma - Tel: +39 0521 931634 - 홈페이지: www.portale.parma.it
비고	농업과 식품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지역 특산품인 프로슈또, 파스타, 유제품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 포장해 유통하고 있으며 요리용 계량기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시너지 효과 창출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상공회의소 연합 이탈리아 산업단지(클러스터) 보고서〉

주요 지역별 여건

- 롬바르디아(Lombardia)**
 - 면적: 23,844km²
 - 인구: 1,002만
 - 주도: 밀라노(Milano)
 - 주요 기관: 밀라노 증권거래소
 - 주요 산업: 금융, 기계, 디자인, 패션, 미디어/정보통신 기술 등
 - 비고: 이탈리아 금융의 중심지로 한국 기업 다수 진출. 밀라노는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연 2회 패션위크가 열리고 있음.
- 피에몬테(Piemonte)**
 - 면적: 25,400km²
 - 인구: 442.4만
 - 주도: 토리노(Torino)
 - 주요 산업: 자동차(FCA), 산업디자인 등
 - 비고: 토리노에 자동차 제조회사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FCA)의 R&D 센터 및 생산공장이 위치. 인근으로 자동차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산업, 산업디자인, 자동차 관련 업체들 밀집
- 라치오(Lazio)**
 - 면적: 17,232km²
 - 인구: 598.8만
 - 주도: 로마(Roma)
 - 주요 기관: 대통령궁, 상하원 국회의사당
 - 주요 산업: 관광
 - 비고: 로마는 이탈리아 정치의 중심지며 주요 공기업(Leonardo, ENI 등)의 본사 위치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28468.5	24047.1	37682.2	18145.6	-388.3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6180.7	24530.9	32817.8	19786.7	10357.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20	8	208,128	20	270,602
2020	15	5	63,432	15	30,641
2021	20	7	30,609	21	20,16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9	3	114,413	9	114,415
건설업	1	1	44	1	44
도매 및 소매업	3	0	80	0	0
운수 및 창고업	1	1	27	1	27
정보통신업	1	0	7	1	7
금융 및 보험업	2	1	51,628	6	114,199
부동산업	1	1	41,513	1	41,5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410	1	4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0	6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1	15,003	6	13,886
도매 및 소매업	3	2	621	3	189
정보통신업	1	0	7	1	7
금융 및 보험업	2	1	1,264	4	11,603
부동산업	2	1	46,469	1	4,95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	0	68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	1	7,945	5	6,591
건설업	1	0	1	1	1
도매 및 소매업	10	5	6,606	11	6,400
금융 및 보험업	1	0	957	2	5,3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15,100	2	1,8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미 및 소매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주)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승용차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넥센타이어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대우인터네셔널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섬유, 기계, 화학, 철강 등 종합무역
모기업명	대우인터네셔널(주)

◦ 대한항공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삼성물산(패션)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류, 직물
모기업명	삼성물산

○ 삼성엔지니어링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플랜트 엔지니어링
모기업명	삼성엔지니어링(주)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8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아시아나 항공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
모기업명	아시아나 항공(주)

○ 이노션 이탈리아 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이벤트
모기업명	이노션(주)

○ 제일기획 이태리 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이벤트
모기업명	제일기획(주)

○ 코오롱 글로벌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섬유, 기계, 화학 등 종합무역
모기업명	코오롱 글로벌(주)

○ 포스코 ITPC S.P.A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포스코(주)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주)

○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상 및 육상운송
모기업명	롯데 글로벌 로지스

○ 한미약품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제품
모기업명	한미약품(주)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모비스(주)

○ 현대상선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상운송
모기업명	현대상선(주)

○ 현대자동차 이태리 판매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효성 이탈리아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섬유, 기계, 화학, 철강 등 종합무역
모기업명	효성(주)

○ GS건설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업(플랜트)
모기업명	GS건설(주)

○ LG전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모기업명	LG전자(주)

○ LF밀라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섬유, 의류, 피혁
모기업명	LG패션(주)

○ SK 하이닉스

진출연도	2010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학제품
모기업명	SK 하이닉스

○ A.I.F. ITALY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지사
업종	물류업
취급분야	항공/해상 물류
모기업명	A.I.F.

○ 셀트리온 헬스케어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제품
모기업명	셀트리온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탈리아 현지법인 설립은 관련 사업 또는 업종별로 관할 기관이 다르고, 해당 기관별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까다로운 법규와 절차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쉽다.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으나, 후자의 경우 일체의 금융 및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지 법인의 형태로는 크게 주식회사(SpA: Societa' per Azioni), 유한회사(Srl: Societa' a Responsabilita' Limitata), 합작회사(SapA: Societa' in Accomandita per Azioni)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본금 납입
 -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 예금 계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 공증기관 입회하여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rio)의 공증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공증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 법인 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 정관: 대표자 성명, 주주 현황, 회사명, 존립 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은행 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 은행이 발급한 해외 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 지사의 주소가 명시돼야 함.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 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임에 유의
-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 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및 회계 업무에 필수
 - 우체국에 상가 부가가치세 번호 발급 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과 소정의 구비서류(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재원 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
-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한다. 최근 전자신고제로 바뀐에 따라 지사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 절차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제(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 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된다. INPS는 CSC, CA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결정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준다.

- INAIL(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은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함.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 수, 급여액, 작업 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상에도 명기돼야 한다.

지사

이탈리아 기업법(Civil Code 2508)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상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지사 운영의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 시 지사는 독립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 기업이 지사 설립 시에는 EU 지침 89/666에 의한 법령 516/92에 따라 상의 발간 관보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 지사는 설립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들을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지사 설립 의결 내용이 기록된 본국 모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연락사무소의 설립도 여타 진출 형태와 같이 지역 상공회의소에 소정 양식을 제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며, 등록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식 기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장(위임장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기업 등록 사무소에 등록)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할 시에는 사무소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보통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혼란스러운 정국과 잦은 정부 교체로 정치적 위험이 상존해 왔으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 전복 등 극단적인 정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는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 사용국가이므로 개별적 통화위험은 없으나, 유로화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한때 그렉시트 위기가 거론되며 유로화 탈퇴의 위기가 조성되며 유로 통화 가치가 한때 폭락한 바 있다. 이렇게 개별 국가의 유로화 탈퇴 위기가 대두될 경우 유로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유로화 안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탈리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EU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탈리아 투자환경 최대 취약점으로는 높은 초기 진출 비용과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관료주의, 외국인 투자 기업 유인을 위한 적절한 수단 및 관련 지원 기관의 부재, 비싸고 불완전한 운송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노동 시장의 경직성, 느린 법정 시스템 등도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에 포함된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 지수에서도 이탈리아는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 2020년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세계 58위를 차지해, 영국(6위), 독일(22위), 프랑스(32위)는 물론 한국(5위)에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독립법인: 이탈리아 현지법인 설립은 관련 사업 또는 업종별로 관할 기관이 상이하고 해당 기관별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까다로운 법규와 절차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용이하다. 현지법인 설립에 앞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으나 후자의 경우 일체의 금융 및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각자의 출자 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 형태로서 특정 기간에 한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단위 합작투자', 개별 기업 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업 간 합작투자'의 형태로 나뉘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다. 합작투자에 따른 별도 법인 설립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유한책임회사(Srl), 합자회사(SpA), 유한합자회사(SApA)의 기업형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사 설립 절차를 따르게 되며, 기존 법인의 주식 취득/지분 참여의 경우에는 지분 관계 변화를 해당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공지하게 된다. 세부 서류는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합작투자에 따른 계약 체결, 지분 관계 등은 투자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작투자 관계 해소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쟁해결 현재 이탈리아에는 대외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창구나 중재 기관 등은 없으며, 분쟁 발생시 개별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에 이탈리아 투자 진출 시 가장 큰 문제는 분쟁 자체보다 그 분쟁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민사소송에 한해 온라인 소송제로 사법 시스템의 탈 관료주의화를 추진하고 빠른 소송 절차 및 재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 분쟁 해결 총 소요일과 변호사 비용 등은 절감되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 납입 자본금은 50,000유로 이상이며, 법인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나머지 75%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할 수 있다. 납입자본금의 형태 및 은행계정평가 등은 전문가가 시행하고, 상공회의소 및 국세청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등록 완료 전 영업개시는 설립 대행인이 무한책임을 가진다.

주식회사 설립 신고에 필요한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 주식 발행 종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기업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회사와 비교했을 때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복잡한 제약이 뒤따르는 단점을 지닌다.

유한책임회사

납입 자본금이 낮고 이탈리아 회사법상 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설립자는 자신이 투자한 출자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발기인 수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며, 납입자본금은 10,000유로 이상이고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1인 유한 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인 1명에 한하며, 회사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개인기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는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 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 내에서만 양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Insight Studio Legale

전화번호	+39 02 7600 6364
주소	Via Cerva 23, 20122 Milano
홈페이지	https://insightlegal.it/kr/
이메일	jpark@insightlegal.i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주연 변호사(대표 변호사)
비고	회사법(현지 투자진출 및 법인 운영, M&A) 및 무역분쟁

◦ Gianni & Origoni Law Firm

전화번호	+39 02 763741
주소	Piazza Belgioioso 2, Milano
홈페이지	https://www.gop.it/
이메일	sykim@gop.i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수연 변호사(한국 Desk 총괄)
비고	회사법(현지 투자진출 및 법인 운영, M&A) 및 무역분쟁

○ Tedeschi 회계사무소

전화번호	+39 02 36544000
주소	Piazza Liberazione 6, Magenta(Milano)
홈페이지	http://www.tedeschiepartners.it
이메일	bianchi@tedeschiepartners.i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한국업체 회계 지원 경험 다수

<자료원 : 로펌 홈페이지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99년 1월부터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가입국의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정부의 자체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담당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는 통화 안전성, 즉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이며, 주요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EU의 경제정책을 지원한다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 ECB가 발행하는 유로화는 변동환율제도(Free-Float) 전략을 추구하며, 유로존 국가에 대해서 외환개입 의무를 진다. 외환 송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EU 국가 간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탈리아는 해외송금 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 시 일부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외환 규제

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관련 규제 이외에 적용되는 외환규제가 전혀 없으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돼 내외국인 모두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고 직접·간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EU 공통 규정에 의거해 5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는 세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EC Regulation 1889/2005).

이탈리아 법규에 의하면 이탈리아 내의 은행 계좌 소지자는 은행에 세금 코드를 공지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금융기관에 자금 수지 및 돈세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 공통 규정인 UIC Instruction 2001/3 (2001. 12. 21. 공표)에 의해 12,500유로 이상의 국제 금융거래는 자금 수지표에 포함, 보고해야 한다. 모든 외환 거래 정보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산하 외환관리청(Ufficio Italiano dei Cambi-UIC)으로 전달되며 통계 처리 후 보관된다.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시스템을 사용 중인 유럽 국가 간 송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외 국가로의 송금 수수료는 은행마다 상이하기에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SEPA 해당 국: EU-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트슈타인, 노르웨이, 모나코, 스위스, 산마리노, 안도라, 바티칸, 영국

○ 자본 본국 송금

- 국경 밖으로의 외환 송금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법에 따라 1만 2,500유로 이상일 경우 자금 수지표 보고 및 돈세탁 방지 규정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 이익 송금

- 이탈리아 내에서 실현한 기업의 배당금 및 이익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 자금 수지표 및 돈세탁 방지 규정에 따른 보고는 동일하다.

○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

- 관련 서류 및 세제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이 없으나, 이때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을 적용받는다. 로열티는 2% 미만, 수수료는 2~5% 사이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이 이상의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무역 거래에 따른 송금

- 전혀 제한이 없으며, 제반 규정은 동일하다.

- 2014년 세계 개혁을 통해 조세 블랙리스트 국가(브루나이, 마셜군도, 필리핀, 홍콩 등)와 1만 유로 이상 무역 거래 시 연간 국세청의 무 신고화를 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총금액 10,000유로 이상 가지고 개인이 출국 혹은 입국 시에는 사전에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도착 후 또는 출국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통화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10,000유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초과금액의 30~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의무 및 세관 검사가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위반사항은 아니나,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소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수화물을 찾은 후 초록색 통로(Nothing to declare)가 아닌 빨간색 통로(Good to declare)로 통과해 서면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스위스에서 입출국하는 철도 이용객은 여객 검사 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며, 선박으로 EU 역내에 입출국하는 여객은 세관 관리에 의한 선박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착지 관할 세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해야 할 현금 종류는 현금 외에도 수표(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9유로(2021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70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769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
비고	○ 대졸-사무직 초임 및 고졸-생산직 초임은 구직구인 사이트인 talent.com의 자료로, 동 사이트에서는 25~34세의 고졸 및 대졸 평균 연봉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 통상적으로 이탈리아는 연 2회(6월, 12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이 부분을 감안하여 급여를 계산했으며, 연봉(세전) 기준 고졸은 22,000유로, 대졸은 33,600유로로 나타나고 있다. - 대졸 초임에서 관련 전공자 혹은 전문 분야로 취업을 하는 경우 평균 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인 사무직의 평균 초임은 31,850유로로 집계되고 있다. ○ 이탈리아는 직군별 노조 협약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이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며, 한국과 같은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자료원 : it.talent.com〉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이탈리아의 근로자 채용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 개시 전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법률 223/91에 따라 신규 채용의 12%는 장애인 근로자(dis advantaged worker)로 채용하게 돼 있다.

이탈리아는 고용주협회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전국단체교섭협약(CCNL, Contratto Collettivo Nazionale di Lavoro)를 통해 고용관계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이탈리아는 별도로 최저임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종 CCNL에 의거해 노동자 직급에 따른 법정 최저급여가 적용된다.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무한 고용 계약(contratto a tempo indeterminato)'이다. 계절 직업, 기존 직원의 출산 휴가, 질병, 병역, 또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나 예외적이다. 또한, '유한 고용 계약(contratto a tempo determinato)'으로 계약하는 경우, 36개월까지 계약 유지가 가능하며 그 후에는 무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된다. 고위 관리직(Dirigenti)의 경우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고용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한편, 2003년에는 이른바 Biagi law(입법자 이름)라 불리는 Decree No. 276/2003에 의해 세 가지 새로운 계약형태, 임시직(lavoro intermittente), job-sharing(lavoro ripartito), 부수 노동(additional work, lavoro accessorio: 상시 고용이 필요치 않고 때에 따라 필요한 청소부, 유모, 정원사 등에 해당)가 도입됐다. 계약 체결 시 법률 CCNL 14/12 1990을 기초로 하되, 섹터별로 최소임금 등 별도의 고용 관련 법률이 있으므로 세부 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률에 의거한 정식 계약에 따를 경우 기업과 근로자는 채용 전 연봉을 포함해 근로자의 등급, 기타 근로조건 등을 합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돼 있으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위해 사회보장세(INPS), 신고용주세(IRAP)를 납부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급여가 연 12회가 아닌 14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14회차(6월) 및 13회차(12월) 상여금이 지급돼야 한다. 13회차 급여는 당해연도 1~12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되며, 14회차 급여는 전년도 7월~당해연

도 6월간 근무에 대한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최저 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법령(Decree 66/2003)에 따라 농업 종사자, 저널리스트, 여행사 직원 등 일부 직종에 한해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된다. 또한, 근로자는 24시간 중 11시간, 1주일에 24시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야간 근무는 24시간 이내에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단체 협약으로 정하며, 단체 협약에 달리 규정돼 있지 않은 한 연간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가

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휴식이 보장되고 법정 공휴일(연간 11일) 및 연간 4주일(근로일 기준 20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돼 있다. 전년도 미사용 휴가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고, 재직 중 미사용 휴가는 퇴직 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돼 있다. 병가는 6개월까지(단체 협약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 정규 봉급 및 직위를 유지하면서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병가의 기간에 따라 고용주와 사회 보 장청(INPS)이 나누어 부담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본인 결혼, 친척 경조사, 자녀 간호 등을 위해 연간 15일의 별도 유급 휴가가 가능하다.

여성은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3개월간의 100% 유급(80% INPS 부담, 20% 회사 부담) 휴가가 주어져며, 추가 6개월간의 30% 유급 휴가가 보장된다(전액 INPS 부담). 동기간 중 드는 비용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부담되며, 남성 역시 육아 필요가 있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법정 공휴일이 주말 또는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일로 간주하고 월급에 포함된다.

해고

이탈리아는 개인 해고(Licenziamenti Individuali)시 반드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합당한 보상 및 복직이 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요건: 고용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 조직구조 변경 또는 기타 기업경영에 관련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 요건에 맞춰서 피고용자의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

- 절차: 해고절차는 고용주가 해당 지역 노동기관에 해고 사유에 대해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해고 대상자는 변호사,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노사 간의 조정 실패 시 고용주는 감원 대상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통지부터 조정 마무리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해진 기간인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이익제기: 해고 당사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시, 법원이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발견 못 한 경우에 한해 부당 해고로 간주돼 피고용자의 복직 혹은 보상금 지급과 사회보장보험이 지원된다.

- 보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고된 피고용자에 대한 보상금은 고용 기간, 총피고용자 수, 경제 규모, 당사자의 활동 및 약관 그리고 피고용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했던 활동 등 다방면으로 검토돼 법원에 의해 결정돼 최종 연봉 기준으로 12~24개월 동안 지급이 되며, 사회보장부담금 또한 고용주에 의해 지불된다.

또한, 개정 노동법을 지원해줄 새로운 사회보험이 신설(ASPI, 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됐다. 2013년 1월 신설된 ASPI는 2017년 기존의 사회보험 전체를 대체하며, 이직수당 및 실업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고 예술가 및 견습직이 대상자에 포함돼 이전의 사회 보험제도에 비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금

이탈리아 노동법에 의거, 고용주는 해고 또는 사직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산정은 근무 연도별 총급여의 13.5%로 반드시 연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전체 임금의 32.7%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이 안에 의료보험, 연금, 고용세가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율의 의료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며, 중사분야별로 다양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8.5%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연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아직 분리돼 있지 않은 통합기금으로 이탈리아 국가사회보험공단(INPS)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전체 임금의 32.7%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이 안에 의료보험, 연금, 고용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연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아직 분리돼있지 않은 통합기금으로 이탈리아 국가사회보험공단(INPS)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산재보험

작업장 산재 보험은 사회보장제와 별도로 납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전체임금의 0.5%로 수준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안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공적 부고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근로자의 근로 실적 및 소득에 연계된 기여금 불입 실적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전체 임금의 32.7%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이 안에 의료보험, 연금, 고용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는 연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아직 분리돼있지 않은 통합기금으로 이탈리아 국가사회보험공단(INPS)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기본 내용은 38년간 기여금 납부와 수령연령 67세 이상으로 명목확정 기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콘테 신정부는 조기 은퇴 제도를 통해 연금수령 가능 연령을 65세로 하향조정 했으며 38년 이상 연금에 가입할 경우 62세부터 은퇴할 수 있도록 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해 24%를 과세하며 국내 법인이나 외국 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전 27.5%였던 세율을 2017년부터 24%로 하향 조정해 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외국 투자가가 이탈리아 내에 등록, 설립한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이탈리아 법인으로 간주한다.

공제 항목이 소득을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걸쳐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 개시 3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기간과 관계없이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로빈훅 세금이라 별칭 되는 추가 법인소득세가 있어 연간 매출액이 2,500만 유로 이상인 에너지 관련 사업체의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 기업소득지방세(IRAP)가 부과되는데 이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윤이 아닌 매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2021년 현재 과세율은 3.9%며, 사업별 차등(스타트업 등) 그리고 지역별 재량권(최대 0.92% 내에서 가감산조정 가능)이 있어 다소 상이하게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이탈리아 거주 개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비거주 개인은 이탈리아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누진 소득세 체계로 과세율은 소득 정도에 따라 23~43%로 나뉜다.

2021년도에는 5단계로 적용됐던 세율은 2022년에는 4단계로 축소 조정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간 15,000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의 23% 과세
- 연간 15,001~28,000유로인 경우 25% 과세
- 연간 28,001~50,000유로인 경우 35% 과세
- 연간 50,001 이상인 경우 43% 과세

면세구간은 직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근로 및 연금소득자의 연소득 면세구간은 8,145유로로 적용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에 더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세가 과세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주단위 1.23~3.33%, 시단위 0.0~0.9%)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모든 형태의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포함된다.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돼 최종단계까지(소비 용품일 경우 소비자가 최종 부가가치세를 지불함)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각 단계의 거래자는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즉 스스로 추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지불한다. 그러나 최종 부가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하므로 기업이 각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환불을 받는다. 역외산 상품 수입 시에도 수입상은 수입 상품가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나, 이는 나중에 환불받는다.

일부 제품 종류에 따라 4%(생필품), 5%(협동조합 서비스), 10%(서비스) 등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보다 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25.5%까지 부가가치세의 단계별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계속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이탈리아 내에서 소비되는 각종 유류,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가전제품에는 폐기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환경세가 부담되고 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이탈리아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령을 산업재산권법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저작권은 표현 형식과 관계없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및 영화의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조건하에서 디자인 개체를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추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출원은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유럽지식재산청을 통하여 출원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이 당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및 디자인은 영국에 그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만약 영국에도 그 권리가 필요한 출원인은 별도로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해당 지재권을 재출원해야 한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이탈리아에서의 투자법인 철수는 일반 기업 폐업 절차와 동일하며,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기업등록부에 기업 등록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법인청산 절차가 진행 중 일 경우 가능하다. ◦ 기업 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이다.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1가지 이유로 해산 및 청산이 가능하다. - 정관에서 정하는 기한이 도래 - 회사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 - 주주 혹은 지분보유자 총회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 - 회사의 자본이 법정최저자본금액을 하회 - 회사가 주주 혹은 지분보유자에게 지분배당이 불가능 - 정관 또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의 사유 이탈리아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종료하려면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업 법(Civil Code)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법인 형태에 따라 청산 절차는 약간씩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1) 법인 청산의 사유를 평가하고, 2) 청산을 집행하며, 마지막으로 3) 기업등록부에 법인을 삭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법인 철수가 결정되면 회계사를 통해 사전에 노무 관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지 채용된 직원에게 철수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사전 의무 공지 기간은 직원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다. ◦ 이탈리아는 법인 청산과 관련해서 민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법인 청산 사유 평가: 기업법(Codice Civile) 2484, 2485 조항 - 법인 청산 절차 및 방법: 기업법(Codice Civile) 2487, 249 조항 - 기업 등록부 삭제에 따른 법인 소멸: 기업법(Codice Civile) 2495, 2496 조항
---	---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1년 12월 기준 이탈리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총 5,924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져 82세에 이르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가 인구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20년도 사망자 74.6만 명) 평균 연령은 45.7세며, 65세 이상이 23.1%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의 노인국가이다.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빈곤율이 9.3%로 상대적으로 높아 북부지역의 구매력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IMF 기준 1인당 GDP(구매력 기준, 2021년)는 41,424달러로 선진 소비 시장 중 하나이다.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IMF>

소비 성향

1) 브랜드 인지도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여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아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제품 디자인

소비자들은 패션과 디자인 강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미적인 외관에 매우 민감하기에, 시장 진출 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소재 및 색상 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패키징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제품의 구성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합리적 가격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2%)가 적용되고, 유통망이 전국이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구조가 다원화돼 고 마진의 유통구조 때문에 자칫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쉬운 시장으로 적합한 가격책정과 유통채널 진입이 필요하다.

4) 가치소비층 증가

최근 장기화한 불황에 이어 코로나 19를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반소비 분야에서 가치소비 구매패턴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매 전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결정하는 신중한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의무형 소비'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할인유통채널을 통한 PB(자가브랜드) 제품 등 저가형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재의

소비시장 또한 확대되어 양극화된 소비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다소 가격대가 높더라도 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 방법, 유기농과 환경 보호 제품 선호 등 소비자의 가치를 충족하는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로 까다로운 소비층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프로세스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소비 패턴과 구매 선호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아마존 등 다국적 플랫폼뿐 아니라 대형유통망의 온라인 마켓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IT제품과 가전기기,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활성화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제품 소비 및 구매 성향이 다양화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건강, 편리함, 지속성이 소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연 친화적 제품과 웰빙제품에 대한 관심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개인 위생용품 등 사람이 직접 섭취하고 인체에 흡수, 흡착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친환경, 유기농, 지속가능성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이탈리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 K-콘텐츠의 대중화 및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에 힘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 LG의 가전제품, 현대·기아 자동차는 판매도 및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품목별로는 자동차는 한국산의 국적 인지도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확산해 있다. 삼성 스마트폰, LG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제품 홍보 시 국가이미지를 함께 홍보하지 않아 삼성, LG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동 브랜드를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외 중소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는 점차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재 품목 중 화장품 부문에서 K-beauty 열풍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아진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이탈리아 내 화장품 전문 멀티숍과 드럭스토어 및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제품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유명 로드샵에서도 자가브랜드(PB)제품으로 판매되는 한국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영화로만 국한됐던 한류 콘텐츠의 인지도가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과 K-드라마로 확산되는 추세로 K-콘텐츠가 이탈리아 내에서 점차 대중화되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한국 상품의 이미지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보수적인 바이어 성향

신규 거래선 발굴에 보수적인 성향이 남아있어 새로운 이탈리아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적 신뢰가 쌓인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이탈리아 바이어의 성향 상 기존 거래선과의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신규 거래를 하기까지는 인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 유통구조와 시장 특성상 다품종 소규모 거래가 일반적임에도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시도 보다는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거래하려는 성향이 강해 바이어 초기 접촉 과정에서 제품의 타 시장 특히 인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다.

2) 계약체결 조건 확인 필요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 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외상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수출 대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금 회수 기간 자금 조달 방안에도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L/C 거래 시 사전확인

대부분의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해 L/C 거래를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T/T 거래를 선호한다. 이탈리아는 L/C 개설 비용이 비싸기에 이로 진행할 경우 매출 확대 가능성과 대금 회수 불능 위험성 간의 실익을 잘 판단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액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할 시 2~5% 할인을 원할 수도 있으며, 할인 정도는 대금 지불 시기가 빠를수록 커진다.

4) 계약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

상당 내용이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좋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꼭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자문을 거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좋다. 상대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는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과 계약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되는 데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추진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5) 현지 유통구조 이해 필요

이탈리아의 경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망이 없다. 지역별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함께 다양한 상관습이 존재하여 아직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업체도 있다. 또한, 북부와 남부 바이어 간 거래 형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여 비교적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남부는 산업 인프라가 북부에 비해 뒤떨어져 소규모의 에이전트 형태의 업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이어가 독점권을 요청할 경우 바이어의 규모 및 유통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어와

거래 시 E-메일 등의 서류는 소송이나 분쟁 발생할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양쪽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은 잘 보관해 언제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6) 신용상태 점검 필요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설령 법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해 오랜 기간 후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가급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거래 조건과 대금 수령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분쟁 시에는 상사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비용을 정확히 문서로 작성해서 청구해야 한다. “대략 얼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몇 월 며칠 ○○○건 얼마” 식으로 철저히 문서로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이탈리아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관료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다. 이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능통한 컨설턴트를 통해 정확한 현지 진출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탈리아 기업은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유동성 자금이 많지 않으므로 환율과 같은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및 대처가 유연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도 확인뿐 아니라 미수금 발생에 대비해 계약단계, 계약 실행단계, 미수금 발생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수금이 발생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계약단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해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신용장 거래를 유도해 미수금 발생 시 거래은행이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보험 체결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덤핑, 할인, 상계조치 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문화적 유의사항

이탈리아는 지역색이 큰 국가로 지방 분권이 발달했으며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남부로 갈수록 보수적인 면이 많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성향이 강해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출신지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또한, 식사 문화가 발달해 비즈니스 관련 미팅이 저녁 식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미팅의 연장선으로 여겨져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약속과 복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 차림으로 약속시각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적어도 3~4주 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4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Mr.---와 같이 정식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코로나19로 방문 약속 및 식사 등 대면미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화상상담 등 비대면 미팅을 선호하고 있다.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은 2~3주 전에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메일 등으로 화상상담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선물

이탈리아에서는 첫 만남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나, 고가의 선물은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 선물을 준비할 경우 회사의 기념품이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제품, 아이디어 상품과 같은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기업 혹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은 상부에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선물은 받는 자리에서 풀어 보기에 가급적이면 무난한 것이 좋으며, 미팅이나 방문 마지막 단계에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 좋다.

4) 인간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

특히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초반에 상대 파트너의 제품보다 파트너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소개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주제와 함께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임으로써 바이어에게 인간적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인간적 신뢰는 비즈니스 시작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인간적 신뢰 위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계약이 성사돼 제품을 선적할 때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 거래 성사 시까지 일정 시간 소요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상담에서 거래 성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파트너와의 인간적 교류가 트였다고 느껴질 경우 비즈니스 거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이미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즈니스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는 특징이 있으나, 최종 성사 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www.amazon.it) ○ 개요: 미국에서 도서 판매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급속히 성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어 다양한 판매자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Amazon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이탈리아에 아마존 이탈리아(Amazon Italia)로 진출했다. 2020년 기준 유럽법인의 매출 규모는 440억 유로, 이탈리아 내 고용인원은 9,5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소형 가전제품,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 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모션으로 프라임데이(Prime Day)라는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탈리아 대형유통망과의 제휴를 통해 당일 배송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 Zalando SE(www.zalando.it) ○ 개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유럽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발 판매를 전문으로 시작했으며, 사업 범위를 확장해 현재 패션 및 액세서리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Zalando는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 이탈리아에 플랫폼을 개설해 진출했다.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80억 유로, 직원 수는 14,194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가방, 신발, 뷰티 제품 등 패션 및 패션 액세서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2018년 독일 베를린에 뷰티 컨셉 스토어를 열어 뷰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3) Esselunga(www.esselungacasa.it) ○ 개요: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망으로 온라인 판매를 이탈리아에 최초로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탈리아 식품 분야 유통시장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4번째로 큰 대형유통망으로 160여 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1957년 밀라노에서 설립됐으며, 2020년 기준 매출은 84억 유로, 직원 수는 24,7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대형유통망으로 식품 및 생활소품, 뷰티 제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오프라인 대형유통망에서 디지털화로 온라인 판매 진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휴대폰 및 태블릿 앱을 통한 마케팅으로 온라인 판매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4) Privalia Vendita(it.privalia.com) ○ 개요: 모기업은 Veepee로 온라인 플래시 판매를 하는 프랑스 플랫폼이다. 기존의 유통망과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 손상 없이 제품의 재고 판매를 위한 솔루션으로 출발했다. Privalia Vendita의 본사는 스페인에 있으며, 유럽 전역으로 판매를 확장해가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모기업인 Veepee는 2001년 프랑스에서 설립됐으며, 2018년 기준 매출액은 37억 유로, 직원 수는 2,579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패션, 액세서리, 장난감, 가전제품 등에서 여행상품, 여가 상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 특징: 회원제 사이트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50%~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5) Yoox(www.yoox.com) ○ 개요: YOOX Net-a Porter Group S.p.A로 Yoox Group와 Net-a-Porter Group의 합병으로 설립된 이탈리아 온라인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80개국에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아웃렛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패션 및 유명 럭셔리 업체와 협력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출시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2015년 밀라노에 설립됐으며,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1억 유로, 직원 수는 4,7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패션 전문 온라인 플랫폼으로 럭셔리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가정 소품도 취급하고 있다. ○ 특징: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브랜드 제품을 아웃렛 가격으로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원천기술 보유업체 M&A로 현지 진출 성공

세아제강은 특수 강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이탈리아의 이녹스텍 (Inox tech SpA)의 지분 전량을 성공리에 인수해 수평적 M&A에 성공하며 현지 투자진출을 했다. 세아제강이 인수한 이녹스텍은 액화천연가스(LNG), 오프쇼어 산업 분야에서 스테인리스 대구 경 강관시장을 선도해온 전문 기업으로, 특수한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세아제강은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강 강관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녹스텍 인수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세아스틸 유럽(SEE)을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쳐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녹스텍은 적자 기업이 아닌 기업의 소유주가 현금 유동성 필요로 매각을 결정한 기업으로, 세아제강이 시의적절하게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인수 후 현지의 기업문화를 존중, 기존의 이탈리아 경영진을 유지해 인수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특히 현지 경영진과 한국 모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으로 생산성 유지에 성공했다. 세아제강의 이노텍스 인수를 통해 선진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수요처의 벤더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진입 벽이 높은 오일 심해 파이프 특수강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한 해외투자진출의 성공사례라 볼 수 있다.

2) 한국 식품 인지도 상승과 함께 KOTRA 지원으로 바이어 확보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의 식품 및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해 새로운 식품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식품에 대해 호기심이 적어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일부 아시아 식품은 대부분 타 유럽국을 거쳐 소량만이 유입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밀라노 엑스포를 개최를 통해 참가국의 다양한 전통음식과 함께 식재료를 경험하며 이탈리아 사람들은 새로운 식품 및 식문화에 대한 경험을 키울 수 있었다. 한국도 한국관에서 한국의 전통음식과 발효를 과학적으로 소개하며 다양한 음식을 제공했고, 이에 힘입어 이탈리아 유력 언론에서는 발효식품과 한식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이어갔다.

한식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새로운 에스닉 식품이 시장에 소개되기 시작하자 갯바위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김제품을 중심으로 바이어 발굴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KOTRA 밀라노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지원을 통해 여러 바이어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밀라노에 위치한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업체와 연결이 돼 이탈리아로의 직접수출에 성공하게 된다. 이 식품 전문 유통업체는 북부 이탈리아의 대형유통망 벤더 업체로 갯바위 제품을 대형유통망에 납품하며 이탈리아 대형마트에서도 김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초샐러드, 무탕면 등 한국의 여러 식품이 이탈리아 대형유통망으로 진입에 성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3) 현지 기술기업과 공동 R&D를 통한 현지 진출

이탈리아는 터빈, 보일러 등 발전부품 분야에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한 기술강국이다. 터보링크는 현지 시장에 터빈 관련 부품 수출을 위해 이탈리아의 원천기술 보유업체와 KOTRA 밀라노 무역관 지사화사업을 통해 첫 미팅을 가졌다. 다수의 미팅에도 불구하고 제품 간 사양 차이로 인해 직접 수출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탈리아 기술업체의 원천기술을 확인한 터보링크에서는 자사의 제조기술력과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자신하고 새로운 부품의 공동 연구, 개발을 이탈리아 업체에 건의하게 됐다.

이탈리아 업체에서도 이미 터보링크의 개발능력을 인정한 바, 양 사는 이탈리아 터빈 부품의 공동 R&D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KOTRA의 GP사업 지원을 받아 양사는 제품 개발에 성공함과 동시에 터보링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부품의 제조 및 현지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이탈리아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입국을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는 이탈리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되고 있다. 단,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탈리아 입국을 위해서는 2021년 12월 기준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①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혹은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 지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지참,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 (dPLF) 사전 제출

※ Pfizer-BioNtech, Moderna, AstraZeneca, Johnson & Johnson 백신만 인정

백신 미접종자: ①입국시 PCR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 이내 실시) 혹은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 지참, 온라인 EU Digital Passenger Locator Form (dPLF) 사전 제출→②입국후 관할 보건당국에 입국사실 신고→③신고후 5일간 자가격리 실시→④자가격리 종료후 PCR(또는 항원검사) 검사 실시*

* 자가격리 종료후 PCR 검사 절차에 관한 문의는 관할지 보건당국에 문의 필요

출입국 사항은 각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제한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발 전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viaggiaresicuri.it/>)와 이탈리아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취득 후 입국해야 하며,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학생 비자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여학원,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과정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어학코스는 최대 1~2년, 정규대학은 최대 10년까지 체류허가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재학하는 학교가 변경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학생 체류허가(Permesso di soggiorno per studio)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주 20시간, 연간 1,04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 노동비자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피고용인 또는 사업 및 투자자에 해당하는 놀라오스타(Nulla osta)를 발급받아야 한다. 놀라오스타의 경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본국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이탈리아에 입국해야 한다. 같은 피고용 비자라 할지라도 이탈리아 회사에 직접 고용될 경우 또는 한국 본사의 이탈리아 지사로 발령이 나는 경우, 그리고 업무 등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3) 블루 카드

블루카드는 2007년 유럽연합 국가 간에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블루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2년 동안 유럽연합 내 어느 국가에서나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블루카드 신청자 자격은 대졸자 혹은 전문직 노동자(엔지니어, 건축가, IT 전문가 등)로 고용주가 이민창구 인터넷 사이트에서 '블루카드 신청양식(Modulo BC)'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90일 이내 가부의 신청결과를 받게 된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과 이탈리아는 2012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당 연간 500명 한도 내에서 협정 체결국의 젊은이들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1년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는 등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5)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는 첨단기술을 가진 인재 초빙을 위하여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17년까지 160건이 발급됐다. 비자 발급 대상은 혁신 스마트 아이템으로 투자금 50만 유로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산하 스타트업 사이트 (<http://italiastartupvisa.mise.gov.it/>)를 통해 신청양식을 접수하면 된다. 이 비자는 경제개발부의 전담부서가 일괄 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양식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6) 체류허가증 발급

이탈리아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EU 역외권 외국인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입국 후 근로일 기준 8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해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Questura)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발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 되기에 체류허가증 발급 전까지는 발급을 신청 접수한 접수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 체류허가증 포털 사이트 : <https://www.portaleimmigrazione.it/>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외국인이 10,000유로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할 경우 이탈리아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10,000유로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소지 총금액이 10,000유로 이상인 경우

- 총금액 10,000유로 이상 가지고 출국 혹은 입국 시에는 사전에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도착 후 또는 출국 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통화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10,000유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초과금액의 30~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직업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를 제외되고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면세반입 한도 금액

- 수입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공항 또는 항만 이용 시 430유로까지, 육로 이용 시 300유로까지 통관할 수 있다.

- o 기타 별도의 승인(신고)을 요하는 반입물품

-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30일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이 필요하며, 총기, 절단무기 및 날카로운 무기류는 반입이 불허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로마)

전화번호	+39 06 802461
주소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t-ko/index.do
비고	◦ 휴일 당직전화: (사건사고) +39 335 1850383 / (근무시간외) +39 335 1850499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12:30, 14:00~17:30 - 영사과 근무시간: 월~금, 9:30~12:00, 14:30~16:30 ◦ 이메일: 공관대표 koremb-it@mofa.go.kr, 영사업무 consul-it@mofa.go.kr

◦ 주 이탈리아 한국 총영사관(밀라노)

전화번호	+39 02 2906 2641
주소	Piazza Cavour 3(4층), 20121 Milano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t-milano-ko/index.do
비고	◦ 야간/주말 긴급전화: +39 329 751 1936 ◦ 근무시간 - 총영사관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12:00, 14:00~18:00 - 영사민원 접수시간: 월~금, 09:00~11:30, 14:00~16:30 ◦ 이메일 : milano@mofa.go.kr

◦ 주 이탈리아 재외 한국 문화원(로마)

전화번호	+39 06 441 633 201
주소	Via Nomentana 12, 00161 Roma
홈페이지	http://italia.korean-culture.org
비고	◦ 월요일 ~ 금요일 / 10:00~18:00 ◦ 온라인 문화원 : http://online.korean-culture.org/italia/ko/main

◦ 로마 한글학교

전화번호	+39 06 8680 2092
주소	Mazzini Scuola Media, Via delle Carine 2, 00184 Roma
홈페이지	http://romascuola.korean.net
비고	이메일: maestropark@msn.com

○ 밀라노 한글학교

전화번호	+39 02 9280 2495
주소	Scuola Fratelli Cervi, Via S.Benedetto da Norcia, Opera(MI)
홈페이지	http://milanschool.korean.net
비고	이메일: scuolacoreana@gmail.com

〈자료원 :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이탈리아 총리실

전화번호	+39 06 67791
주소	Palazzo Chigi Piazza Colonna 370, 00187 Roma
홈페이지	http://www.governo.it/

○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ICE)

전화번호	+39 06 59921
주소	Via Liszt 21, 00144 Roma
홈페이지	https://www.ice.it/it
비고	영문 홈페이지: https://www.ice.it/en/

○ Il Sole 24 Ore

전화번호	+39 02 30221
주소	Via Monte Rosa 91, 20149 Milano
홈페이지	https://www.ilsole24ore.com
비고	이탈리아 최대 경제지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전화번호	+39 06 46731
주소	Via Cesare Balbo 16, 00184 Roma
홈페이지	https://www.istat.it/

○ 이탈리아 투자개발공사(INVITALIA)

전화번호	+39 848886886
주소	Via Pietro Boccanelli 30, 00138 Roma
홈페이지	https://www.invitalia.it/
비고	스타트업 지원 및 남부지역 투자유치

〈자료원 : 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9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07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6.89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6.89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5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4.50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45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90
8	의료	항생제 (의료보험가 적용)	12정	2.25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25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250
11	교통	택시요금(평일 6시~21시)	기본요금	3.60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남성)	1회	24.78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790
14	서비스	전기요금(평균, 부가세 별도)	1Kwh	0.14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평일)	일반	11.26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5.8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3.510
18	임금	사무직 임금 평균(세전, 연봉)	대출	37851.01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5655.46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000

<자료원 : ENEL, ENI, ATM 홈페이지, KOTRA 무역관 자료 종합, 2021.12월 환율 기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유로(Euro)로 약칭은 "€"이다. 1 유로는 100센트(Cent)이며 주화로는 1, 2, 5, 10, 20, 50센트 및 1유로와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 10, 20, 50, 100, 200, 500유로가 사용되고 있다.
------	---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관광지나 역 인근의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수시 가능하나,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의 환전은 달러-유로 간의 환전만 가능하다. 수수료가 높고 적용 환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미리 환전해 가는 것이 좋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달러가 통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원화와 유로 간 환전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환전해 놓아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이탈리아에서 널리 이용되는 결제 방법은 현금이나 체크카드(EC-Card)이며, 신용 카드는 VISA와 MASTER 카드이다.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점차 보편화하는 추세로 시내의 호텔, 백화점, 식당 및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현금 사용을 1회 2천 유로 미만으로 제한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점차 사용처가 증가하고 있다.
밀라노, 로마 등의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택시나 작은 상점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영세 상점에서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있기에 소액 현금을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시외로 나갈수록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시외로 갈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나 1일 인출 액수 한도가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밀라노와 로마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는 도시로 지하철, 버스, 트램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기준, 밀라노는 4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고 있다. 차후 추가로 1개의 노선 개통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로마에는 3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 외, 토리노, 브레샤, 나폴리 등 주요 도시는 모두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는 편이다.

버스

버스는 노선이 많으며, 시내 전 지역을 운행하고 있다. 색깔은 오렌지색, 초록색이며 지하철 승차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과 달리 노선이 복잡한 데다 한국과 달리 차내 방송이 거의 없어 처음 이용하는 출장자는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노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달리 현금 승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인근 Tabacchi라고 적혀있는 담뱃가게 혹은 신문 가판대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승차해야 한다. 승차한 다음에는 버스 앞 혹은 뒤쪽에 있는 개찰기에서 개찰해야 하며, 하차는 한국과 비슷해 내릴 곳이 가까워지면 벨을 누르고 내리면 된다. 교통권 가격은 밀라노 시내 교통 기준 2유로로 90분 내에서 다른 버스나 트램, 지하철로 계속 갈아탈 수 있다.

택시

출장 시 가장 편리한 교통편인 택시는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어 전화로 직접 부르거나 호텔, 식당, Bar 등에서 호출을 부탁하면 된다. 많이 이용하는 콜택시 번호는 밀라노 지역에 서는 주로 +39 02 4040, +39 02 6969, +39 02 8585 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콜택시가 아닌 경우 택시가 거리에 정차돼 있더라도 탑승할 수 없으며, 시내 광장 등 TAXI라고 표시된 택시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는 탑승할 수 있다.

평일 기본요금은 3.30유로이며,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기본요금이 5.40유로로 책정된다. 심야 할증요금은 6.50유로로 21:00~6:00에 적용된다. 택시요금은 1km당 1.09유로, 정차 시 10초당 0.10유로씩 부과된다. 시내 중심부 두오모역에서 중앙역까지 약 10~12유로면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리나떼 공항까지는 20~30유로 정도가 소요된다. 말펜사공항까지는 정액으로(95유로) 운행된다. 참고로 택시를 이용할 때 반드시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팁을 줄 경우 센트 단위 요금을 반올림해 주는 정도가 보통이다. 또한, 택시를 부를 경우 부르는 순간부터 요금이 올라가므로 택시가 도착했을 때 기본요금이 3.30유로보다 높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

밀라노와 로마는 지하철이 잘 발달해 있는 도시로, 지하철을 통해 대부분의 관광지와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밀라노 지하철 노선은 총 4개로 1호선 붉은색, 2호선 녹색, 3호선 노란색, 5호선 보라색으로 구분된다. 밀라노 시내를 관통하는 4호선은 2022년에 개통해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철역에는 M자가 붙은 붉은 표지판이 있어 쉽게 눈에 띈다. 출장 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노선은 1호선과 3호선으로, 1호선에는 밀라노의 중심인 두오모(Duomo) 역을 비롯해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는 카이롤리(Cairolì)역과 밀라노 전시장(Fiera Milano)으로 이어지는 로(Rho Fiera)역이 있으며, 3호선에는 밀라노 철도 교통의 중심인 중앙역(Centrale F.S.), 패션과 명품의 거리로 이어지는 몬테 나폴레오네(Monte Napoleone) 역이 있고 1호선과 3호선은 두오모(Duomo)역에서 교차한다.

지하철 표는 역 안에 있는 자동 표 판매기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Tabacchi라고 적혀있는 담뱃가게 혹은 신문 가판대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승차해야 한다. 승차 시 개찰기에 개찰해 승차해야 하고, 밀라노는 대부분의 역에서는 나갈 때 출구에서도 표를 찍도록 하고 있다. 교통권 가격은 밀라노 시내 교통 기준 2유로로 90분 내에서 다른 버스나 트램, 지하철로 계속 갈아탈 수 있다.

트램

시내 구석구석을 달리는 전차로서 서점 등에서 노선도를 구입할 수 있다. 버스와 마찬가지로 노선이 복잡한 데다 한국과 달리 차내 방송이 거의 없어 처음 이용하는 출장자는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노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트램도 현금 승차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인근 Tabacchi라고 적혀있는 담뱃가게 혹은 신문 가판대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승차해야 하고, 승차한 다음에는 버스 앞 혹은 뒤쪽에 있는 개찰기에서 개찰해야 한다.

승차권은 버스, 지하철과 공용으로 밀라노 시내기준 2유로이며 승차권을 구입해 처음 탈 때 개찰한 이후 90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Tim, Vodafone, WindTre, Iliad, Fastweb가 있으며, 각 통신사의 프로모션과 요금제 등 조건을 확인하여 유심카드를 구입하면 된다. 유심카드는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통신사를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유심카드 비용은 약 10유로이고, 선택한 요금제의 비용은 추가로 결제하면 된다. 요금제에 따라 비용은 충전식과 자동결제식이 있으며 통신사 프로모션 상품에 따라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가입 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약 24시간 이내에 요금제가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무선인터넷 사는 Festweb, Tim, WindTre, iliad 등이 있다. 요금제 및 프로모션에 따라 기본 1년 또는 2년 계약 약정으로 계약 종료일 전에 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니 계약 전에 약정 기간 등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인터넷 사의 대리점 또는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날짜와 시간이 배정되면 기사가 방문하여 모뎀 설치 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일반 유선전화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을 신청할 때 유선전화 사용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인터넷 및 시내 유선전화 무한대 사용 서비스가 1개월에 약 30~40유로 선이다.

라. 관광명소

◦ 밀라노 두오모(Duomo di Milano)

도시명	밀라노
주소	Piazza del Duomo, 20122 Milano
운영시간	8:00~19: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밀라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상징이자 대표적인 고딕양식 건축물로, 1386년 비스콘티 공장의 명에 따라 공사가 시작돼 19세기 초에 완공된 성당이다. 130여 개의 첨탑과 3,400여 개의 성자와 사도 조각이 성당의 웅장함을 더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첨탑에는 밀라노를 수호하는 황금 마리아상이 있다.
비고	18:10 티켓 종료. 두오모 입장료 5유로, 전망대 및 유물전시관 포함 20유로

◦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찌에 교회(Chiesa di Santa Maria delle Grazie)

도시명	밀라노
주소	Piazza Santa Maria delle Grazie 2, 20123 Milano
운영시간	8:15~19: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고딕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로, 교회 안의 식당 벽에 그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고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벽화로 유명한 성당이다. 관람 예약이 밀려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관람 시간은 15분으로 제한돼 있다.
비고	1/1, 5/1,12/25 휴무, 최후의 만찬 입장료 15유로

◦ 스칼라 극장(Teatro alla Scala)

도시명	밀라노
주소	Via Filodrammatici 2, 20121 Milano
운영시간	스칼라 박물관 10:00~18: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극장으로 1778년에 건립되었다. 원래는 산타마리아 델라 스칼라 교회의 터에 세워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시 공습으로 소실돼 1946년 현재의 위치에 재건됐다.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나비부인, 투란도트 등 여러 명작을 초연한 것으로 유명하며, 오페라 박물관이 있다.
비고	1/1, 부활절, 5/1, 8/15, 12/7, 12/25, 12/26 휴무 (12/24와 12/31은 오후 휴무) 스칼라 박물관 - 매주 월요일 휴무 - 운영시간: 10:00~18:00 - 박물관 입장료: 9유로

◦ 스포르체스코 성(Castello Sforzesco)

도시명	밀라노
주소	Piazza Castello, 20121 Milano
운영시간	7:00~19:3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두오모 광장에서 단테 거리를 따라 나오는 스포르차 가문의 상징. 밀라노 시내에 위치한 성채로 지금은 도시 박물관과 예술품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성 내부 박물관에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인 론다니니 피에타가 있으며, 그 외 유명한 미술, 조각품들이 소장돼 있고 무기, 악기, 가구 등 다양한 전시품들이 전시돼 있다.
비고	성 내부 박물관 - 매주 월요일 휴무 - 운영시간: 10:00~17:30 - 박물관 입장료: 10유로

◦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도시명	밀라노
주소	Via Brera 28, 20121 Milano
운영시간	9:30~18:30
휴무일	매주 월요일 휴무
명소소개	로마의 바티칸,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과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관. 미술대학인 브레라 아카데미 내부에 있는 미술관으로 다양한 회화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유명하다.
비고	매월 셋째 목요일 할인입장(투어 그룹 입장 불가) : 3유로, 미술관 입장료 : 15유로

〈자료원 : 관광지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알 꾸오코 디 보르도(Al cuoco di Bordo)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669 1873
주소	Via Gluck 11, Milano
가격	50~70유로
영업시간	12:30~16:30 / 19:30~22:30
휴무일	월, 화요일 휴무
소개	밀라노 중앙역 인근에 위치. 해산물 식당
비고	이탈리아 현지식

◦ 사비니 레스토랑(Savini)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7200 3433
주소	Via Ugo Foscolo 5, Milano
가격	35~75유로
영업시간	12:00~14:30 / 19:00~22:30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밀라노 시내에 위치. 근방 사비니 카페와 함께 운영
비고	이탈리아 현지식

◦ 아미치 미에이(Amici Miei)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5832 1197
주소	Viale Bligny 42, Milano
가격	25~50 유로
영업시간	12:00~15:00 / 19: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밀라노 지역 전통 음식 전문점
비고	이탈리아 현지식

◦ 옥원(Giardino di Giada)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805 3891
주소	Via Palazzo Reale 5, Milano
가격	15~40유로
영업시간	12:00~14:45 / 19:00~22:45
휴무일	월요일 휴무
소개	밀라노 시내 두오모 인근에 위치
비고	중식

◦ 엔도(ENDO)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6698 6117
주소	Via Fabio Filzi 8, Milano
가격	20~50유로
영업시간	12:00~14:30 / 19:00~22: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밀라노 중앙역 인근 위치
비고	일식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 한국식당

◦ 하나(HANA)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3651 3579
주소	Via Giuseppe Mazzini 12, Milano
가격	20~35유로
영업시간	12:15~14:30 / 18:30~22: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밀라노 시내 두오모 인근에 위치

◦ 진미(Ginmi)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2951 6394
주소	Via Paisiello 7, Milano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17:00~2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17시 이후 영업.

◦ 가야(Gaya)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2953 1106
주소	Via D.Scarlatti 3, Milano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12:30~15:00 / 19:00~23:00
휴무일	수요일 휴무

◦ 누들하우스(Noodle House)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8738 2275
주소	Via N.Antonio Porpora 167, Milano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12:00~15:00 / 19:00~23:00(월,토 23:30)
휴무일	일요일 휴무
소개	한국식 중식

◦ 미가(Miga)

도시명	밀라노
전화번호	+39 02 2940 5838
주소	Via Alessandro Tadino 52, Milano
가격	15~30유로

영업시간	12:30~15:00 / 18:00~22:30
휴무일	일요일 오전 휴무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엔에이치 호텔(NH Hotel)

도시명	밀라노
주소	Largo Augusto 10, 20122 Milano
전화번호	+39 02 77461
홈페이지	https://www.nh-hotels.it
숙박료	싱글 : 210유로, 더블: 220유로
소개	무역관 인근에 위치한 4성급 호텔

○ 미켈란젤로 호텔(Hotel Michelangelo)

도시명	밀라노
주소	Piazza Luigi di Savoia 6, 20124 Milano
전화번호	+39 02 67551
홈페이지	https://www.michelangelohotelmilan.com/
숙박료	싱글: 135유로, 더블: 160유로
소개	밀라노 중앙역 옆에 위치한 4성급 호텔

○ 엔에이치 피에라(NH Fiera)

도시명	밀라노(로피에라)
주소	Viale degli Alberghi, s/n, 20017 Rho Mi
전화번호	+39 02 300371
홈페이지	https://www.nh-hotels.it/hotel/nh-milano-fiera
숙박료	싱글: 55유로, 더블: 80유로
소개	밀라노 전시장 인근 호텔
비고	전시기간 호텔료 2~3배 상승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이탈리아는 강력범죄 등에 대한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도난 및 소매치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공항, 기차역, 시내 유명 관광지, 백화점, 축구장, 전시장 등 사람이 많고 번잡한 장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갑과 핸드폰 등 소지품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고 사진기, 노트북 등 고가의 물품이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량 및 차량 내 귀중품 도난사건이 빈번하고 특히 렌터카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 주정차 시 차량 내부에 지갑, 노트북, 휴대폰 등 고가 물품은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오토바이치기(차량, 특히 렌터카 펑크 포함)에 대비하여 차량 문을 반드시 잠가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으로,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79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하며 모듈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한다. 만약 사고의 과실을 두고 당사자 간 의견이 대립하여 모듈 작성을 못 하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도 보험사에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며 추후 보험사끼리 합의를 통해 사고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에 대한 긴급구조조치를 취한다. 긴급전화 112로 연락하여 신고하면 이를 접수한 경찰이 견인차 호출, 부상자 호송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신고 접수 경찰서, 담당 경찰관, 사건번호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내비게이션이나 도로표지판을 통해 정확한 사고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총영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경찰에 도난신고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 로마 대사관 긴급 연락처: +39 06 802461(근무시간), +39 335 1850499(근무시간외)
- 밀라노 총영사관 긴급 연락처: +39 02 29062641(근무시간), +39 329 7511936(긴급상황시)

3) 응급 전화번호

- 긴급통합번호(병원, 소방서, 경찰서): 112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택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집을 구하는 방법은 우선 부동산 중개소에 구하고자 하는 집의 조건과 지불 가능한 월 임대료 수준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집을 구할 경우 통상 연 임대료의 10~18%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집은 Furnished(Arredato) 된 경우와 Unfurnished(Vuoto) 된 경우가 있어 원하는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시 통상 3개월 치 임대료와 2~3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선불해야 하고, 보증금은 추후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집 사용에 따른 하자 발생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 기한 전에 집을 비우고자 할 때는 계약서 조항에 따르나, 통상 3~6개월 전에 주인에게 알려야 손해가 없다. 고지는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이뤄진다. 임대 계약은 통상 4년+4년으로, 입주 4년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해지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4년이 갱신된다. 벽에 못을 박거나 가구위치 변경 등 원래 상태에서 변화를 주는 경우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해야 하며 계약이 끝날 시 원상태로 복구해 놓아야 한다. 입주 시와 같이 않은 상태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비 등을 제외한 잔액이 반납되니, 주인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 전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차계약 체결에 요청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여권, 재직증명서(또는 학생증), 지난 3개월간의 소득증명서 등이다. 임대 계약서상 불공평한 점은 집주인과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추가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좋으며, 입주 시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더욱 좋다.(열쇠 개수, 온수 사용 가능 여부, 곰팡이 존재 여부, 바닥 카펫 상태 등). 특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기돼 있을 경우, 입주 전부터 존재하던 사항을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요 주택중개 사이트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으면 인터넷 또는 정보지 등을 통해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 주요 부동산 전문 사이트

- www.casa.it
- www.immobiliare.it
- www.eurekasa.it
- www.subito.it
- www.idealista.it

그 외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집을 소개해주는 전문업체가 있으나 실제로는 소개비로 약 150유로를 받으며, 제공되는 집의 정보가 선별된 것이 아니고 정보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렸던 정보를 무작위로 모아 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3) 등기 과정

임대차 계약 후 등기를 하게 되며, 등기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50:50 분할 부담한다. 등기비용은 관리비를 제외한 연 임대료의 2%이며, 이에 인지세와 수수료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표준 계약의 경우,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임대료의 조정이 있으며, 조정된 임대료로

매년 등기를 새로 해야 한다.

전화

대부분 전화와 인터넷, 때로는 케이블 TV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인터넷을 신청할 때 유선전화 사용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인터넷 및 시내 유선전화 무한대 사용 서비스가 1개월에 약 30~40유로 선이다. 인터넷 사용량 및 통신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기에 사용자의 필요와 비용에 맞춰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각 통신사에서 웹사이트 또는 매점 방문을 통해 전화/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가 당일 또는 다음날 이루어지는 한국과 다르게 이탈리아 전화/인터넷 개설은 빨라도 2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거주지가 확정되는 즉시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전화/인터넷 개설 속도는 더 늦어진 편이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22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한국은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110V 제품은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특히, 주파수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장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다.

식수

수돗물에 석회함유량이 많아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신다.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생수 가격 또한 인근 유럽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자동차 구입에는 체류 허가증, 세무 번호, 거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 구입은 주거지가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된다. 거주등록증은 발급에 통상 수개월(밀라노 지역의 경우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등록증 발급 전 차량 구입 시에는 거주등록증 발급 신청서로 갈음하기도 하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거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차 구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모델을 직접 보고 상담을 받아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신차 구입은 각 지역 소재 자동차 대리점(주로 시 외곽에 위치)을, 중고차의 경우 중고차 대리점이나 중고차 거래 전문 사이트(www.secondamano.it 등)에서 검색,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계약금을 걸게 돼 있는 것이 관례이나, 계약액으로 지급된 금액은 해약 시 전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계약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 이탈리아에서의 중고차 구입은 사기가 많아 많은 유의가 필요하다.

차량가격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가 22%로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은 비싼 편이다. 이탈리아 자동차 메이커인 피아트가 국내 프로모션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피아트: www.fiat.it

이외, 한국 차량인 현대와 기아의 현지 판매모델과 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 기아자동차: www.kia.com/it/
- 현대자동차: www.hyundai.it

운전면허 취득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국내 운전면허 학원 수업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비용은 한국보다 3~4배 정도 비싼 편이고, 필기 및 주행시험도 한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며, 운전학원에 직접 가서 의무적으로 이론 수업에도 참석해야 한다.

한국 면허증이 있는 경우 한국 면허증을 이탈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주기에 현지에 와서 교환하면 된다. 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한국 면허증을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면허증을 이탈리아 면허증으로 바꾸는 경우를 ‘Conversione Patente Estera’라고 하며, 운전학원(Auto scuola)을 통하거나 이탈리아 경찰청(Motorizzazione)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교환은 1대 1 교환으로 이뤄지며, 최종 귀국 시 이탈리아 면허증을 반납한 뒤 국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한국으로 귀국 후 재발급받는 것이 편리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인테사 산파올로 은행: <http://www.intesasanpaolo.com>
- 유니크레딧 은행과 함께 이탈리아 2대 은행이다.
- 유니크레딧 은행: <http://www.unicredit.it>
- 이탈리아 최대 은행으로 이탈리아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정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포함되어 있다.
- BNL 은행: <http://www.bnl.it>
-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으로 밀라노에 지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은행 계좌 개설은 체류 허가증과 세무번호 발급 후 은행을 방문해 소정 양식을 기재해 제출하면 즉시 개설된다. 은행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는 은행마다 상이하다. 계좌 개설 시 현금 직불카드(BANCOMAT)를 같이 신청하며, 신용카드는 발급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은 신청 후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연회비 등 부가 비용이 불기에 결제목적용을 위해서라면 직불카드만으로도 충분하다. 은행 계좌 개설 시 한국은 개인이 비밀번호를 정하지만, 이탈리아는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발급해주므로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American School of Milan(ASM)

도시명	밀라노
커리큘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
학비	- 유치원: 입학금(5,000유로), 등록금(1,350유로), 수업료(15,800유로), 학교운영비(2,250유로) - 초등학교: 입학금(5,000유로), 등록금(1,350유로), 수업료(1~2학년 15,800, 3~5학년 17,300유로), 학교운영비(2,250유로) - 중학교: 입학금(5,000유로), 등록금(1,350유로), 수업료(19,300유로), 학교운영비(2,250유로) - 고등학교: 입학금(5,000유로), 등록금(1,350유로), 수업료(20,800~22,400유로), 학교운영비(2,250유로)
홈페이지	http://www.asmilan.org
비고	미국계 학교, 밀라노 근교 Noverasco di Opera에 위치

○ Sir James Henderson School(BSM)

도시명	밀라노
커리큘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과정
학비	- 유치원: 입학금(1,530유로), 등록금(1,020유로), 수업료(13,865유로), 학교운영비(765유로) - 초등학교: 입학금(2,100유로), 등록금(2,550유로), 수업료(1,2학년 16,015유로, 3,4학년 17,515유로, 5,6학년 18,275유로), 학교운영비(765유로) - 중학교: 입학금(2,100유로), 등록금(2,550유로), 수업료(19,575유로), 학교운영비(765유로) - 고등학교: 입학금(2,100유로), 등록금(2,550유로), 수업료(20,050~21,150유로), 학교운영비(765유로)
홈페이지	http://www.britishschoolmilan.com
비고	영국계 학교. 밀라노 시내 위치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사크로 꾸오레 밀라노 (Sacro Cuore Milano)

도시명	밀라노
커리큘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인문계, 예술, 과학) 과정
학비	개별 문의 필요
홈페이지	https://www.sacrocuore.org
비고	카톨릭 재단의 명문 사립학교

<자료원 : 학교 홈페이지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마. 병원

○ 니과르다 종합병원 (Ospedale Niguarda)

도시명	밀라노
주소	Piazza dell'Ospedale Maggiore, 3, Milano
전화번호	+39 0264441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종합병원
비고	밀라노 북부에 위치

○ 폴리클리니코 종합병원 (Ospedale Maggiore Policinico)

도시명	밀라노
주소	Via F. Sforza 35, Milano
전화번호	+39 02 55031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종합병원
비고	밀라노 시내 위치

○ 파떼베네프라텔리 종합병원 (Ospedale Fatebenefratelli)

도시명	밀라노
주소	Corso Porta Nuova 23, Milano
전화번호	+39 02 63631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종합병원
비고	밀라노 시내 위치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리나센떼 (Rinascente)

도시명	Milano
주소	Piazza Duomo, Via Ulrico Hoepli, 20121 Milano
홈페이지	https://www.rinascente.it
비고	영업시간: 월~목(9:30~21:00), 금~토(9:30~22:00), 일(10:00~21:00)

○ 코인 (Coin)

도시명	Milano
주소	Piazza Cinque Giornate 1/A, 20129 Milano
홈페이지	https://www.coin.it
비고	영업시간: 월~금(10:00~20:00), 토(10:00~20:30), 일(10:00~20:00) 밀라노에 체인이 2곳(Corso Vercelli 30/32, Piazza Cantore 12) 더 있음.

〈자료원 : 쇼핑센터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 식품점

○ 펍 (Peck)

도시명	밀라노
주소	Via Spadari, 9, 20135 Milano
취급 식료품	와인, 치즈, 햄 등 각종 특산물
비고	이탈리아 특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고급 식자재 전문점으로 직영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

○ 이틀리 (Eatly)

도시명	밀라노
주소	Piazza Venticinque Aprile, 10, 20121 Milano
취급 식료품	각종 파스타, 과일, 채소, 이탈리아 특산물 등
비고	'Made in Italy'를 내세운 식품점으로 로마 등 주요도시 및 해외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홈페이지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골프 클럽 밀라노(Golf Club Milano)

도시명	밀라노
주소	Viale Mulini S. Giorgio 7, 20900 Parco Reale di Monza (MB)
홈페이지	http://www.golfclubmilano.it/
소개	밀라노 인근도시인 몬짜 지역에 있는 골프장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한 골프장이다.
비고	밀라노에서 차량으로 1시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자료원 : 홈페이지 및 KOTRA 밀라노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22-01-01	전국 동일
주현절(Epifania)	2022-01-06	전국 동일
부활절 및 부활절 다음 월요일	2022-04-18	매년 변경, 전국 동일
해방 기념일	2022-04-25	전국 동일
노동절	2022-05-01	전국 동일
공화국 축일	2022-06-02	전국 동일
성모 승천일	2022-08-15	전국 동일
제성절	2022-11-01	전국 동일
성 암브로시오 축일	2022-12-07	밀라노 공휴일, 각 도시별 수호성인 축일(공휴일)이 상이함. 로마(6.29.), 피렌체(6.24.), 나폴리(9.19.), 베네치아(11.21.)임.
성모무영잉태축일	2022-12-08	전국 동일
크리스마스	2022-12-25	전국 동일
성 스테파노 축일	2022-12-26	전국 동일

〈자료원 : KOTRA 밀라노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밀라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Via Larga 2, 20122 Milano, Italy
- 전화: +39 02 795 813
- 팩스: +39 02 7202 2491
- 이메일: kotramil@kotra.it

공항-무역관 이동

1) 말펜사(Malpensa) 공항에서 중앙역(Centrale) 하차

- 셔틀버스: 중앙역(Centrale)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70분, 1인 10유로, 30분 간격
 -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정면에 공항리무진버스 매표소
 - 중앙역(Centrale)에서 하차 후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무역관 이동 가능, 택시비는 약 15유로 소요
 - 지하철로 이동 시, 중앙역에서 3호선(노란색) 지하철 탑승 후 두오모역 하차
- 공항철도: 중앙역(Centrale)/까도르나역(Cadorna)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 1인 편도 13유로, 30분 간격
 - 공항 입국장에서 공항철도 연결 안내 표시판을 따라 이동
 - 목적지는 중앙역(Centrale)과 까도르나역(Cadorna)으로 나뉘며 종착역 하차 후 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무역관 이동 가능, 택시비는 약 15유로 소요
 - 지하철로도 이동 가능하며 중앙역은 노란선, 까도르나역에서는 빨간선을 타고 두오모 하차

2) 리나테(Linate) 공항에서 중앙역(Centrale) 하차

- 셔틀버스: 중앙역(Centrale)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1인 5유로, 15~20분 간격
 -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정면에 공항리무진버스 매표소
 - 중앙역(Centrale)에서 하차 후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무역관 이동 가능, 택시비는 약 15유로 소요
- 시내버스: 산바빌라(San Babila)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1인 2유로로 시내교통티켓으로 이용, 20~30분 간격
 - 공항 입국장 앞에 시내버스(73번)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후 산바빌라 하차. 도보로 약 8분 소요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